

주한 日대사, 한기총 방문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로”

정서영 대표회장 만나 관계 발전에 한기총 역할 당부
정 대표회장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미래로 가야”
日대사 “내년 수교 60주년, 양국 관계 발전 계기”

올해 5월 부임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19일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방문해 정서영 대표회장 등과 환담하며, 한기총이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부임한지 6개월이 지났다.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다고 들었다”며 “한국인들 중 20%가 개신교인이고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약 3분의 1이 기독교를 믿는다.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님을 만나면 (한국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에서는 보통 종교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신은 믿는다”며 “저는 일본에서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천주교 미션스쿨을 다녔다. 작은 성경을 공부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제 부모님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에 공감해 저를 미션스쿨에 보내셨던 것 같다”며 “한국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대사로 있었다.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의 역사적 장소가 많다. 그런 곳들을 방문할 때마다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고 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이 “한국보다 일본에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하자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에는 전국시대 당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거부되거나 탄압된 적도 있었다. 복잡한 역사가 있다”고 했다. 정 대표회장은 “일본에서 신앙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했다.

정 대표회장은 또 “일본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다. 사회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선교가) 아직 많이 발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본인들은 신을 많이 믿는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이 좋은 경우 많이 봤다”고 했다.

정 대표회장은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야 함을 역설했다. 정 대표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과거에만 너무 묶여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에 미즈시마 대사는 “공감한다. 양국이 더욱 발전적 관계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지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안보면에서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경제는 일본과 같은 수준, 어떤 면에서는 일본을 초월할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경제적으로도 양국이 협력한다면 윈윈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사이좋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내년은 양국 수교 6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라며 “그런 특별한 해에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올해 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천만 명을 넘을 것 같다. 국교 정상화가 안 되었던 60년 전에는 그 수가 연 1만 명 정도였다”며 “일본인들도 한국을 많이 좋아한다. 케이팝이나 드라마, 한국의 음식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 오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일본과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청년 고용 문제 등 비슷한 과제들도 안고 있다”며 “서로 협력해서 잘 해결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기총이 일본과 한국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앞으로도 서로 이해해가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한기총은 철저한 반공사상을 가진 기독교 보수 단체다. 특히 북한에 관한한 일본과 입장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서영 대표회장과 미즈시마 대사가 만난 자리에는 한기총에서 엄기호 목사(증경대표회장)와 김용도 목사(명예회장), 김경환 목사(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왼쪽)와 한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가 19일 한기총을 방문해 정서영 대표회장 등과 환담을 나눴다. ©김진영 기자



한기총 및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감 남부연회, ‘동성애 축복식 진행’ 남재영 목사 출교하라”

감바연·퍼시연 등 120개 단체 19일 기감 남부연회서 기자회견 개최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FIRSTKorea시단연대 등 120여 개 단체는 19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목회장 김정식)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열린 하늘문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재영 목사의 출교를 요구했다. 남 목사는 지난 7월 대전 쿼어 행사에 참여해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의식을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기감 행정총회에서 교단법은 ‘쿼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감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쿼어신학을 가르치고 축복의식을 자행한 남재영 목사(빈들공동체)에 대한 출교 재판에서 성경과 교단의 교라장정에 따라 출교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쿼어신학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예수님까지도 동성애자라는 망언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반역행위이며, 성경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쿼어신학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인간 이해와 지식을 잣대 삼아 자의적 해석을 내려 예수님과 제자, 사도들을 쿼어케이라고 가르친다”며 “이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말씀을 위배하여 재앙을 자처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2019년 인천쿼어행사에서 축복식을 진행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경기연회와 감리교단으로부터 출교당한 이동환을 필두로, 남재영 목사 등 목사 5인은 올해 7월 6일 대전 쿼어행사에서 쿼어 축복식을 자행했다”며 “남재영 목사는 친동성애 단체 NCKC의 임원으로 20년을 재직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연회가 이동환이 자행한 쿼어 축복식에 출교를 선고한 것처럼, 남부연회도 성경 및 교라장정에 따라 반드시 남재영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쿼어들은 동성애 등 그 죄값으로 평생 HIV 감염과 에이즈로 인해 고통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쿼어들을 축복함으로써 질병과 고통, 사망의 길을 동조·조장·강화하는 것이 아닌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라고 했다.

아울러 “쿼어들의 음란한 성행위가 죄임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죄의 길을 떠나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목사의 책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기감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쿼어신학을 가르치고 축복의식을 자행한 남재영 목사(빈들공동체)에 대한 출교 재판에서 성경과 교단의 교라장정에 따라 출교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쿼어신학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예수님까지도 동성애자라는 망언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반역행위이며, 성경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쿼어신학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인간 이해와 지식을 잣대 삼아 자의적 해석을 내려 예수님과 제자, 사도들을 쿼어케이라고 가르친다”며 “이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말씀을 위배하여 재앙을 자처하는 행위”라고 했다.

또한 “2019년 인천쿼어행사에서 축복식을 진행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경기연회와 감리교단으로부터 출교당한 이동환을 필두로, 남재영 목사 등 목사 5인은 올해 7월 6일 대전 쿼어행사에서 쿼어 축복식을 자행했다”며 “남재영 목사는 친동성애 단체 NCKC의 임원으로 20년을 재직했다”고 했다.



남재영 목사의 출교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주최 측 제공

특히 “죄를 죄라고 말하는 성도들과 충성된 길을 가는 목회자들에게 혐오 프레임을 씌워 대중들에게 기독교를 차별의 종교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 또한 남재영 목사의 과오”라며 “우리들은 그 어떤 누구도 차별과 혐오를 한 적이 없다. 다만 쿼어는 분명한 죄로서, 죄에서 떠나 죄에서 구원할 예수께로 나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기감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쿼어들에게 축복 의식을 자행한 남재영 목사를 성경과 교단의 교라장정에 따라 출교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선시공 후분양

올림픽대로·강변북로 인근 아파트 값 고공행진!

더블역세권 천호대로변 최고급 아파트 그란츠 주목!

안국경제
아파트값 천장 뚫렸다... 반포 '국민평형' 55억원

매일경제
"서울도 아닌데 22억, 그래도 우르르"... 청약 열기는 아직 안 식었네

동아일보
3.3㎡당 1억 넘는 서울 아파트 단지 52곳 역대 최다

한강이 눈 앞! 올림픽대로가 코 앞!

GLAnZ RIVER PARK

그란츠 리버파크 더블역세권 최고급 아파트 59㎡/84㎡ 선착순 일반분양!!

복층형 특별분양

113㎡ 테라스형

- 공급면적 | 164,682㎡
- 전용면적 | 113,359㎡
- 기타공용면적 | 96,953㎡
- 계약가격 | 2,924,000,000원
- 신청금 | 10,000,000원

총 407세대 지하 7층~지상 42층 2기동

8 Premium

- 위풍당당 도성명품 아파트 리버·시티 트윈뷰(전부세공)
- 광선, 상층, 관망 이득이 배반 천호·강동역 더블역세권
- 역명품 아파트 (지하) 단지 지하철, 현대백화점 원스톱 진입
- GTX노선 예정 GTX프리미엄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인접 초고속 멀티 교통망
- 이달의 명품주택가 우호로변 등 완성 무상제공 그란츠만의 특화이점
- 전호생동 역호변 가구 전시관 진행중 눈부신 미래가치
- 컨시어지(서비스, 조식, 빨래, 주차 서비스 등) 프리미엄 럭셔리 라이프

그란츠 특화 시설(81~지상3층)

- 호실식 사우나, 골프클럽(예약)
- 베이지 로프트, 무인택배, 무인창고
- 신세계푸드 주식서비스(예약)
-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예약)
- 삼성스토어, 스타벅스(예약)

분양문의·모델하우스(사전예약제)

1599-3457

선착순 동·호 지정 입금

신협금입 우리은행 | 1005-004-649386 (주)코리안자산신탁

시흥 (주)아프리카퍼먼 시흥 DL이앤씨(주) 설계 heerim 신학 ▶ 코리안자산신탁